

켄 윌버(Ken Wilber), 『진실 없는 진실의 시대, Trump and a Post-truth World』, 김영사, 2017. 1부 1,2장

1. 저자 이해

켄 윌버 : 통합이론을 추구한다는 특징 (cf. 근대 학문은 분과학문), 『모든 것의 역사』와 『통합 비전』의 저자.

미국식 초월주의를 보여주는 듯. 전근대와 근대, 동양과 서양을 '융합'하려는 듯. 사기꾼 같은 느낌이면서도, 그 이론체계 안에서는 설득력이 있음. 신채호의 소아 대아 언급과도 비슷. 유사종교와의 연계가 없는지 궁금. 여기서 말하는 인류/인구가 미국인을 말하는 것인지 유의.

2. 용어 이해

가. 아퀼(AQAL)

- 1) 온사분면(All Quadrant)- 의식의 주관적/객관적 차원, 상호주관적/상호객관적 차원을 망라한 것
- 2) 온수준(All Levels) - 자아중심에서 민족중심, 세계중심, 우주중심, 신성중심 단계 (성장발달진화)
- 3) 온라인(All Lines) - 인지, 정서, 자기, 도덕성, 관계 등 준 독립적으로 발달해가는 다중지능
- 4) 온상태(All States) - 각성상태, 꿈상태, 깊은 수면상태 등의 각기 다른 상태
- 5) 온유형(All Types) - 남성적/여성적, 외향적/내성적 등의 성격 특징

나. 존재의 4사분면 : 우주의 네 얼굴, 개인/개체와 집단/집단체의 내면과 외면 모두를 통합적으로 다루는 기본 모형으로서, 윌버는 수준이 다른 모든 존재(물질, 신체, 마음, 혼, 영)는 적어도 네 개의 주요 차원을 갖는다고 보는데, 각 존재는 내면과 외면 차원에서 그리고 개별적이거나 집합적인 형태로 볼 수 있다는 것이 골자. 예컨대 의식은 각자가 경험하는 내적 측면(사고, 감정, 욕구 등)에서 볼 수도 있지만, 객관적, 경험적, 과학적인 외적 측면(뇌 신경계, 신경전달물질 등)으로도 연구할 수 있다는 것. 뿐만 아니라 집합적인 형태로도 존재하는데, 이것 역시 문화적 가치의 내적 공유와 구체적인 외적 사회 형태를 갖고 있다. 달리 말하면, 사분면의 위쪽 두 면은 개인/개별 영역이고, 아래쪽 두 면은 집단/집합 영역이며, 우측 두 면은 외면, 좌측 두 면은 내면 영역에 해당한다. 이를 편이상, 우상, 좌상, 우하, 좌하 사분면이라 부른다.

- 1) 우상 :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개별적 성분들(원자, 분자, 세포, 유기체 등)로서, 과학의 대상. 3인칭으로 서술되는 객관적 진실을 다룸. 경험주의, 실증주의
- 2) 좌상 : 내면의 각성수준(의식의 폭과 깊이)에 자리잡은 영역. 과학적 유물론에 의해 부정되었으나, 전근대와 종교의 지혜 영역. 1인칭 주관적 진실성
- 3) 우하 : 홀론들의 외면적 집합체. 즉 사회. 공동체/사회적 영역. 시스템 이론 등의 과학적 연구로 지지됨. 3인칭 복수 주어.
- 4) 좌하 : 특정한 사회문화의 내부에 있는 사람과 공유하는 의식 패턴. 의미, 관습, 윤리 등의 문화적 영역. 탈근대학자들이 강조하는 것. 2인칭 또는 1인칭 복수 주어

다. 도표 비교

실재	진(과학)	선(종교)	미(예술)
켄 윌버	우상+우하	좌하	좌상
	3인칭(그것)	2인칭(너, 우리)	1인칭(나)
	과학	도덕, 종교	예술
	자연	문화	자기, 자기표현, 보는 자의 눈
칼 포퍼	객관세계	문화세계	주관세계
하버마스	객관적 진실	상호주관적 공동성	주관적 성실
칸트	순수이성	실천이성	판단력
불교	불	법	승

라. **스파이럴 다이내믹스** : 사람들의 심리구조, 가치체계, 적응방식 등을 다양한 색깔로 표현한 것.

- 1) 1층 Meme은 상호 배제적 : 베이지-본능 인구0.1%, 자주색-주술적 인구10% 힘1%, 적색-정복자 인구 20% 힘5%, 청색-순응 인구40% 힘30%, 오렌지색-과학 인구30% 힘50%, 녹색-유대와 연결 인구10% 힘 15%
- 2) 2층 Meme은 1층 Meme에 의해 공격받음 : 과학적 유물론(오렌지)은 내적단계를 뉴런의 작용이라 일축하고, 신화적 근본주의(청색)는 분노, 자기중심주의(적색)은 2층 전부를 무시, 유대와 연결(녹색)은 2층 의식을 권위적이고 계층적이고 압제적이며 인종주의적이라고 비난. 1층에서 2층으로 가는 것은 기념비적 도약 (2층 인구1% 힘5% : 황색-통합적, 터콰이즈-전체적)
- 3) 3층 : 월버는 그 위에 인디고, 바이올렛, 자외선, 투명한 빛이라는 네 단계를 추가함.

마. **Meme** : 리처드 도킨슨이 이기적 유전자에서 사용한 용어. 문화의 전파도 진화의 형태를 띠기 때문에 유전자 전파에 비유할 수 있다고 봄. 밈은 유전자gene와 모방mimene의 조합. 밈은 전염성이 있는 바이러 스텔럼 마음에서 마음으로 확산된다.

바. **反-녹색** : 녹색이라는 인류진화의 첨단에서 극단적인 자기애와 허무주의에 빠져 자기교정 단계로 들어간 것. 그 전단계인 오렌지색 세계 중심, 황색 민족중심, 적색 자기중심 중 하나를 활성화할 수 있음. 트럼프를 지지하는 이유.

사. **분별지혜** : 책 참조. 불교용어.

아. **전후유류** : pre-□, □, post-□의 차이점을 명백하게 설명하는 켄 월버의 방법. 프로이트는 초이성적인 심오한 비이원적 신비상태를 원초적이고 자기도취적이며 전이성적인 유치한 헛소리로 환원했고, 융은 전이성적인 유아적 이미지와 신화를 초이성적인 영광으로 격상했다고, 켄월버는 비판한다.

자. **형태형성장** : 셸 드레이크는 기억은 뇌에 저장되는 것이 아니라, 형태형 성장에 저장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다. 과거의 경험, 행동, 정신작용은 형태 공진(resonance)에 의해 현재화된다.

차. **홀론holon과 홀라키holrachy** : 홀론은 전체를 뜻하는 holos와 부분을 뜻하는 on의 합성어. 그 자체로 전체이면서 또한 더 큰 전체의 일부를 이루는 것을 일컫는 용어. 홀론들의 위계적 계층구조를 홀라키라고 부름

제1부 개관, 제1장 탈진실의 시대

트럼프는 왜 당선되었냐는 질문에 월버는 인류 진화의 퇴보 때문이라고 답한다. (월버의 논의가 문화의 진화론을 담고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집단의 변화를 개체의 발생 혹은 종의 진화와 비유적으로 사유하고 있다는 것도 유의해야 한다.) 그가 말하는 퇴보란, 1960년대 이후의 녹색 단계 - 다원론적, 탈근대적, 상대주의적, 자기실현, 다양성, 포용성, 연대, 다문화적인 것을 표방하는 녹색단계에서의 퇴보이며, 매슬로우의 욕구단계설의 퇴행과 견줘지기도 한다. 참된 진리는 부정당하고 끊임없는 해석만이 등장했고 해석들은 나르시시즘으로 귀결되었으며, 다원주의는 고삐 풀린 상대주의로 전락하고 어디에도 참된 진리는 없다는 가치론적 nihil리즘으로 빠져들었다. 포스트 모던의 메시지는 진리는 없다는 것. 푸코, 데리다와 같은 포스트 모더니스트들은 진리 혹은 권력에 끊임없이 저항해야 한다는 무관점적 광기에 빠져들면서도 자신들의 견해만큼은 온전한 진리라고 주장하는 수행모순을 저질렀다. (그러나 포스트 모던이 진리가 없다는 데서 끝난 것인지?) 인문학 교수의 상당수는 아직도 그 어떤 진리도 없다는 탈진실을 가르친다. 그러나 진화의 첨단이 그 방향을 상실할 때, 인류는 퇴행을 시작했다. (더 나아가진화로서의 진리를 요청하는 이런 생각이 오히려 위험한 반지성주의일 수 있는 것은 아닌지... 일본이 서구의 근대를 받아들일 때 보인 반응과 같다. 오히려 사람들은 진리의 실재성을 믿고자 하여 자꾸 거짓 진실로 빠져드는 것은 아닌지. 그것이 인지적으로 편하기 때문. 이런 현실이 인문학자에게 요청하는 것은 '서로 사랑하라.', '살인하지 말라.' 등과 같이 역사를 통해 상대적으로 덜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진리체계를 '교육'하는 것이 아닐까.) 인구의 5% (2층??)만 도달해있는 참된 질서야말로 진화가 나아가야 할 방향임이 분명하다. 진화가 무작위적이고 방향성이 없다는 것은 19세기 환원주의적 과학적 유물론의 잔재에 불과하다. 노벨상 수상자 알리야 프리고진은 물질시스템에도 고유한 자기조직화 충동이 있다고 밝혔다. 물리적 시스템이 평형상태에서 벗어날 때, 더 높은 수준의 질서상태로 도약함으로써 혼돈에서 벗어난다. 인류의 문화적 진화 또한 그렇게 이해될 필요가 있다.

제2장 끝없이 확장되는 계단

(켄 윌버는 기존 문헌들을 총 망라하여 인류의 원시상태를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참조한 문헌의 비과학성, 물개성적 성격만큼이나 윌버의 종합 또한 원시상태에 대한 획일적 추정일 수 있다는 위험성을 갖는다. 그 획일성을 극복하기 위해 켄 윌버는 '무계중심'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어느 하나가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갈 수는 있지만, 그 사회의 무계중심이 아래 단계일 수 있다는 것이다.)

50만년 전, 인류의 첫 단계는 자기중심적. 타인의 역할을 수행하거나 입장을 바꿔 생각할 수 없음. 40명 집단. 판타지에 지배, 전조작적(피아제, 만2~7세) 인식, 마법적 사고. 부족간 전쟁과 비정복부족에 대한 노예화 성행.

기원전 1만 년, 인류는 마법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자연과 정령들에게 마법을 양도했다가 더 나아가 신화적인 신의 형상들을 만들기 시작했다. 신이 제공하는 삶과 죽음에 대한 대답(이라고 생각하는)은 근본주의적 종교들의 원동력이 되었다. 이런 신화적-지역적 종교 수준에서는 성경의 글자들이 그대로 참이라고 믿는다. 모세는 홍해를 갈랐고, 예수는 처녀가 낳았으며, 룻의 아내는 정말 소금기둥이 되었다. 복잡한 인식능력에 기반하여 자기중심적 단계는 인종/피부색/성별/종파를 기반으로 한, 우리와 그들을 나누어 '이교도를 죽이는', 민족중심적 단계로 확장되었다. 노예제도, 전쟁, 고문이 정점을 이루었고, 성전과 선민사상이 유행했으며, 가부장제와 노예제도가 성행다. 그러나 이 단계에서도 마법적이고 신화적인 구조를 완전히 변화시킬 수는 없었다. (한편 그 종교 안에서도 깨달음, 자각, 득도, 해탈을 추구하는 의식상태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는 개인의 자발적인 참여를 필요로 한다. 이슬람 수피즘, 유대교 카발라, 선불교, 기독교의 명상 등이 그것이다.)

태고적 단계에서 - 부족적.마법적.전통적인 신화적 단계(엠버색) - 근대의 합리적 단계(오렌지색) - 탈근대의 다원주의적 단계(녹색) - 통합적 단계로의 변화는 모든 인간이 성장하면서 거치게 될 단계이다. 마법적 단계는 1~3세, 마법적-신화적 단계는 4~7세, 민족중심의 신화 단계는 6~11세에 거친다. 그러나 미국 국민의 60%는 미국 사회의 무계중심으로서 `민족주의적 단계에 머물러 있고, 이들이 곧 공화당원이고 트럼프를 만들었다.

민족중심적인 로컬 사고에서 글로벌 사고로의 전환은 계몽운동에서 시작된 근대를 말하는 것이다. 과학기술의 폭발적 발달은 수명증가, 질병퇴치, 민족국가성립, 자유시장경제출현, 우주개발 등을 가능하게 했으며 모든 인류가 평등하다는 사고가 정착되었다. 근대는 진선미 중 진(과학)에만 집중하여 선과 미를 배제하는 '파국적 재난'이었다.

이에, 녹색 포스트모더니즘, 인권운동, 환경운동, 페미니즘, 느낌과 마음의 강조 등이 나와서 탈근대를 특징지었지만, 곧 니힐리즘과 상대주의의 나락으로 떨어진 것이다.

이제 곧, 녹색의 단계를 극복할 수 있는 통합적 단계, 5%만이 도달한 인류 진화과정의 2층, 기념비적인 도약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